

# 제주사회복지신문

>2016년 6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04호

## ‘요보호 아동 돌봄’, 지역사회 참여 절실

### 입양·가정위탁 비율은 계속 줄고, 시설보호 의존 높아

**(사례1)** 영희(가명·38세)씨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안 좋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영희씨 부부에게 입양은 삶을 바꿔 놓았다. 입양을 통해 얻은 아들 성혁(가명·3세)이가 이제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성혁이를 돌보고, 사진을 찍으며 커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일은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사례2)** 부자(父子) 가정에서 자라던 민지(가명·5세)는 끼니를 제때 챙겨먹는 날이 없었다. 아버지의 방심으로 치아가 모두 상할 정도였다. 그랬던 민지는 최근 가정위탁을 통해 위탁부모와 언니, 오빠가 생겼다. 처음에 민지는 낯을 많이 가렸다. 가족들은 그래서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민지는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할 만큼 가족의 품에 적응했다.

사례1과 사례2는 입양과 가정위탁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이야기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



▲ 지난달 22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강철남)는 렛츠런파크제주(경마공원)에서 제13회 가정위탁의날을 기념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알리는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가족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이렇듯, 입양과 가정위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게 가정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가족이 필요한 가정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오늘날, 입양과 가정위탁을 통한 보호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요보호아동 발생 수는 2008년 9284건에서 2014년에는 499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경제적 어려움과 출산을 저하가 반영된 것일 뿐,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조치현황이다.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현황을 보면, 입양의 비율은 2008년 14%(1304명)에서 2014년 8%(394명)로, 가정위탁은 2008년 30.6%(2838명)에서 2014년 26%(1300명)까지 줄었다. 반면 시설을 통한 보호는 계속해서 늘어나 절반이 넘는 수준인 상황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제주도의 공개입양은 2011년 9명에서 2015년 5명으로 점차 줄고 있으며, 가정위탁

의 경우에도 전체 위탁가정 234세대 가운데 16세대만이 일반위탁가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입양과 가정위탁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가 문제라고 말한다. 특히 입양의 경우 최근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공개입양시 친부모의 호적 등록이 의무화돼 기피현상이 늘고 있다.

양창근(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요보호 아동 발생 시, 가정중심 보호가 적은 편”이라며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전국평가 제주 최고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이 2015년 사회복지 시설평가 결과 제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4개 분야 839개 시설 중 17위를 차지한 성적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2~2014년 3년 동안의 운영결과를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편,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우수평가시설 가운데서도 제주에서 유일하게 상위 10% 안의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 지면소개

- 종합 ..... 2-3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란
- 사회복지소식 ..... 4-5면  
도민·이주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성황
- 오피니언 ..... 6면  
사문·칼럼·기고
- 기획 .....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4)
- 특집 ..... 8면  
시설탐방(78) - 사회복지법인 유진

2016 사회복지아카데미



사회복지 종사자의 국제 장애인권리보장 동향과 사회복지 현장의 역할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사회복지

**일 정** 2016. 6. 17.(금)  
14:00~17:00(총 3시간)

**교육장소** 우리협의회 2층 삼다수홀  
(제주시 청풍남8길 12-1)

**신청기간** 2016. 5. 25.(수) ~ 6. 15.(수)

**신청방법**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교육과정 배움'에서 신청

**공동주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강사

김형식 UN장애인권리위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역임

교육비 무료 (교재제공)

문의 064) 702-3784

## 제주선수단, 8개 종목에 34개 메달 획득

###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제주도 선수단이 8개 종목에서 금 12개, 은 9개, 동 13개 등 총 3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함께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을 구호로 내건 이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전국 17개도시 3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개최됐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총 10개 종목에 136명의 선수단(선수 63명, 임원 및 보호자 73명)을 파견했다.

이번 체전에서 제주선수단은 종목별로 육상에서 12개(금5, 은2, 동5), 수영 5개(금3, 은2), 배드민턴 3개(금2, 은1), e-스포츠

2개(금1, 동1), 탁구 7개(은2, 동5), 역도 3개(금1, 은2), 축구 1개(동), 플로어볼 1개(동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양재원(아라중) 학생은 T20 800m,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2관왕을 차지했으며, 김향(남원중) 학생은 DB(초/중/고)여자단식과 복식에서 2관왕을, 하현수(제주중앙여중) 학생은 역도 중

목 +70kg 스쿼트 지적 발달장애 OPEN(중)에서 100kg을 들어 올려 한국 학생 신기록을 달성했다.

박종선 제주선수단 총감독은 “이번 대회의 결과는 그동안 묵묵히 훈련한 선수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강원도 일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석한 제주도선수단 축구팀 학생들의 모습.

##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제주도내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13일 고태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세월호 피해자의 상당수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자살 시도, 이혼, 실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복귀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은 피해자를 위한 ‘제주정신건강트라우

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그외 주요사항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직업훈련 수당, 의료비 지원, 추념행사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편, 지난달 20일 세월호피해상담소에서는 고태순 의원, 박원철 의원, 세월호 피해자, 상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 인권 팁&톡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인권사랑방 064)702-3783

## 6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 사례관리 총론(경인여자대 조현순 교수) • 사례관리 과정론(중앙대 김성천 교수) • 사례적용 (대림대 유명이 교수)	1일(수)-3일(금) 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사회복지지원 개발과정(2)	• 3개월 만에 후원자 2배로 올리는 모금 비법 • 강사: 김재춘 소장	9일(목) 협의회 2층 삼다수홀	
김만덕기념 사업회	김만덕기념관 1주년 기념행사	• 개관 1주년 특별전 오프닝 • 기념식, 나눔쌀기증식	3일(금) 11시-12시 김만덕기념관	759-6090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제주도협회	2016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 기념식, 예능발표회 • 체험의장, 어울림행사 등	8일(수) 10시-16시 제주시 한라체육관	732-5004
한국장애인 개발원	201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건축물 및 공인인증 지표 등	17일(금) 제주특별자치도 1별관 3층 소회의실	710-2892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제주도지부	2016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정규직종(20개) 및 시범직종(12개) •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2개)	6월 29일(수)-7월 1일(금) 개회식: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장소: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	756-4990

758 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5월 기탁 현황

▲금강수산물유통=수산물 30kg ▲금강축산물유통=돈육 283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130개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 561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975개 ▲서문식품=두부 461모 ▲신화유통주식회사=장류등 262개 ▲암양 영농조합법인=빵 12봉 ▲에스에이치유통=과자 2064봉 ▲유진상사=오뚜기식품 3599개 ▲자연드림 이도점=빵 204봉 ▲제성상회=햄류 120개 ▲제주보리촌=보리빵 380개 ▲행복나눔마트 노형점=비누 216개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302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48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540,000	540,000
복지사업후원	975,000	522,100
푸드마켓후원	2,770,000	106,7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운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러더제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논란’

### 자격정지 기준·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문제 지적 한국복지사협, “범사회복지계와 함께 대응할 것”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취소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 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문제의 소지

가 많다고 지적되는 조항은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의3 부분이다. 이는 동법 11조의3의 신설에 따른 자격정지 또는 취소요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해, 실제 적용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 예로,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손해의 유형과 정도’, 이를 판단하는 ‘주체와 경로’ 등이 모호한 기준으로 꼽힌다.

또한 제5조제6항 등에 나온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복수 선정과 관련한 부분도 말이 많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복지사 보

수교육은 사회복지사협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도 교육기관으로 진입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보수교육의 질 저하, 상업화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숙(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현재 제주협회에서는 특별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온라인상 반대서명운동, 의견개진 캠페인 등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재 지방협회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비상대책위를 꾸려 범사회복지계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 평안전문요양원, 장기요양 사례 ‘우수’ 선정

평안전문요양원(원장 고수희)의 프로그램이 지난달 18일 2016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노인

성질환 어르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집단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장기요양보험 관련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돼, 유관기관에 홍보될 예정이다.

한편, 평안전문요양원은 201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워크숍’ 열려



“종사자들의 인권침해를 말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비밀보장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해 주세요”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워크숍’이 지난달 17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열렸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인권사랑방(위원장 고관용)이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을

함께 증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9개 기관 25명의 종사자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교육협동조합 사물소속 강사단(장소영, 김효선, 최정애, 진영림)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이용해 진행했다.

워크숍은 각 세션마다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상황 탐색 △ 종사자의 인권보호 탐색 △ 종사자와 이용자의 상생의 길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 8개 기관·시설, 위기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협약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 4월 27일 8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위기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사진)

이날 협약으로 8개 기관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세대를 발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위기 장애인가족에 대한 문제해결과 함께 네트워크 활성화,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



다. 협약 참여 기관은 용담1동주민센터·용담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정신재활센터, 제주영송학교, 해바

라기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선도어린이집 등이다.

## 제주색동어린이동화구연대회서 특별상 수상

지난달 15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제17회 제주색동어린이동화연구대회에서 함덕지역아동센터(센터장 명혜숙) 박효민(함덕초·1)학생이 특별상, 김은영(함덕초·2)학생이 은상, 김서은(함덕초·3)·김유화(함덕초·1)·이세은(대흘초·3)학생이 색동상을 수상했다.(사진)

아이들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천도서관과 연계해 진행한 ‘문학놀이’ 프



그램을 통해 동화구연을 지도 받아왔다. 명혜숙 센터장은 “아이들을 위해 오름등반, 올레걷기, 바닷가모래놀이 등 제주의 자연을 체험하

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 낭송대회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내꿈은 파티시에’ 대회서 최우수상

(pâtissier, 제빵사)

지난달 21일 SPC그룹에서 주최하는 제5회 ‘내꿈은 파티시에’ 대회에 참석한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센터장 송영란) 김민솔(도순초·3), 김승유(도순초·3), 임다송(중문초·3)학생이 ‘행복한 사계’라는 작품으로 아동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약 45개팀이 예선을 치렀고, SPC그룹 제과제빵 전문가의 완성도 평

가, 마케팅 전문가의 상품성 평가, 일반인 온라인 투표 표를 통해 청소년 부문, 아동 부문에서 각각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경선을 치렀다.

# 도민·이주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성황

## 외국인평화공동체 주최, 세계인의 날 기념 '제9회 다민족문화제'



▲ 지난달 21일 칠성로 일대에서 열린 제9회 제주다민족문화제에서 이주민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색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고 있다.

제9회 제주다민족문화제·제1회 행복 나눔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제주 칠성로 상점가 차없는 거리 일대에서 열렸다.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및 세계인의 날을 맞아 (사)외국인평화공동체와 제주칠성로상점가문화관

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도민 및 도내 거주 이주민 약 500여명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축제는 무대 및 부대행사,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축제장에는 15개국의 이주민과 제주 정착 주민들

이 함께 마련한 플리마켓이 열렸고, 부대행사장에는 이동 출입국 상담소, 이동 외국인 도움센터, 길거리 다언어도서관, 페이스 페인팅 및 요술품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료 이·미용 등이 마련됐다. 각 나라와 문화권의 길거리 공연도 다양했다. 베트남·파키스탄 중도입국 자녀가 펼치는 길거리 마술공연을 비롯해 네팔전통춤, 중국 양갈춤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열어 길거리 이색 릴레이 벽화 그리기, 새로운 제주미래 디자인 등의 인디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 '건강한 제주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21일(토) 자원봉사자 단합 행사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제주 만들기'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서귀포시 보목리 일대에서 펼쳤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5개 봉사단체(작은세상봉사단, 운누리봉사회, 좋은인연봉사회, 손뜻모아봉사회, 지역사회봉사단 봉사하늬)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른 아침 보목하수처리

장에 모인 봉사단은 활동사항을 안내받고 하수처리장에서부터 보목포구까지 올레 6코스를 따라 걸으면서 해안가에 몰려든 스티로폼과 생활쓰레기,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이기영 수석부회장은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제주를 위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다(多)함께 만들 장'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예 및 플리마켓 프로그램 '다(多)함께 만들 장' 개강식을 지난달 19일 열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지원 지역다문화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다(多)함께 만들 장'은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들이 5가지 공예교육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습득한 재능을 플리마켓 운영 등과 같은 지역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지난달 19일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다(多)함께 만들 장' 개강식에서 이주민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원식 관장은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도적인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과 플리마켓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가을 나들이와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증장애인 체험홈 마련 '집 짓는 양' 모금활동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달 13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홈 마련을 위한 '집 짓는 양' 모금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제주애덕의집은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체험홈 운영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집 짓는 양' 200마리를 분양했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집 짓는 양' 모금사업은 양



5000마리 분양을 통해 1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내 체험홈 1개소를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집 짓는 양'

모금액은 4036만5804원으로 26.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홍보캠페인과 함께 SNS를 통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제주시가 후원하고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김정숙)가 주관한 '2016년 제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연합연수'가 지난달 12일부터 2박3일간 대구, 경주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 종사자 연합연수는 제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7개 기관에서 총 20명이 참

가하여 대구, 경주 일대를 돌아보며 시설 종사자들 간 화합의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있는 더불어복지재단 산하 「더불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견학하며 타지역 주간보호 시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 제주중 몽생이기자단에 감사패 수여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4일 제주중학교 영상제작동아리 몽생이기자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주중 학생들로 구성된 몽생이기자단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지역사회와 복지현장을 주제로 기사와 영상을 게재했다. 양선영 제주중 지역사회교육전문가(사진 오른쪽)



는 "학생들이 사회복지현장의 소식을 취재하며 뜻깊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식/마/당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특강 운영



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는 지난달 24일 도내 청소년지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특강을 운영했다.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단체·기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이번 강의에는 박철웅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이 초빙됐으며, '나는 청소년지도자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2016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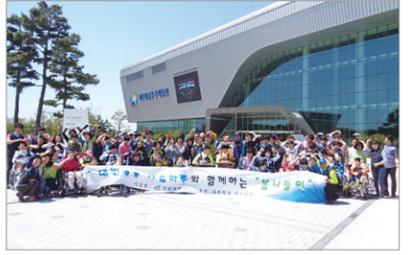
혜정원 아가의집(시설장 박두현)은 지난달 21일 개원28주년을 맞아 조천체육관에서 '2016년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이용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단체(구구천사 봉사단, 서귀포댄스스포츠연합회 문은하 회장)와 양미선 후원자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스승의 날 주간 맞아 '기부데이' 동참



제주중학교(교장 진성필)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생활용품 등 약 8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물품은 스승의 날 맞아 '기부데이' 주간을 정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나눔 동참으로 모였다. 제주중학교에서 기부한 물품은 도내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다솜마루 함께하는 날들이



사회복지시설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달 17일 대한항공 다솜마루 봉사팀과 함께 항공우주박물관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팀과 이용인들이 5D관람, 동영상관 관람 등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체험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다솜마루 봉사팀은 매년 창암재활원을 방문해 봄나들이를 지원해 오고 있다.

마사회 엔젤스봉사단과 봄소풍 행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1일 제주렛츠린파크에서 한국마사회제주 엔젤스봉사단과 거주 장애인 보호자들이 함께하는 봄 소풍 행사를 열었다. 화창한 5월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맛있는 점식식사, 신나는 레크레이션 등으로 준비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구·경주지역 찾아 문화체험



사회복지법인 선도원(회장 임말시아)은 부설기관 벨엘, 마리아의집 종사자와 거주인을 포함한 39명과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2박 3일간 대구와 경주지역의 관광지와 유적을 돌아보는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선도원은 이날 문화체험을 통해 거주인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질서 준수능력 및 종사자와 유대관계 키우기 등을 도모했다.

어버이 날 맞아 꽃과 선물 전달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식)는 지난달 7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과학고 18기 자바 봉사단에서 후원받은 양말과 직접 만든 카네이션 등을 삼화아파트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원광요양원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직접 그리고 만든 액자, 휴지케이스, 비누 등을 함께 어르신들께 드리며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는 기회를 접했다.

전래놀이 한마당 행사 개최



은새미로(늘푸른, 봉아름, 용담, 우리동네, 이호) 지역아동센터연합은 지난 4월 30일 제주목관아지에 함께 모여 '2016년 가족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마당'을 열었다. 약 2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가족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기러기놀이, 신발뺏기놀이, 나이먹기, 나는 팽이, 망쭈기, 망차기 등 전래놀이에 참여하며 함께 하는 놀이의 즐거움에 대해 느끼는 자리가 됐다.

활동보조인 힐링프로그램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지난 4월 28일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활동보조인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양떼목장을 방문하여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며 활동보조인 간의 친목을 다지고, 여유롭게 산책을 하며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한마음 축제서 문화체험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17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 축제'에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참가했다. 시설 이용인들은 이날 진행된 행사 가운데 5km 코스 마라톤대회와 1.5km 코스 걷기대회에 참가해 3명의 선수가 각 부문 1, 2위에 입상하고, 참가자 모두가 완주하는 등의 성적을 거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원역량 교육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기관장 김순실)은 지난 4월 21일부터 총 4회기에 걸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제주도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 및 바람직한 양육기술'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곽영숙 교수 외 2명)를 초빙해 진행됐다.

어르신 모시고 떠나는 행복나들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 부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지난 4월 19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2박 3일의 일정으로 '함께라서 좋은 행복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여행을 주제로 낙안읍성민속마을, 순천만공원, 순창 고추장마을 등을 관광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론

### 국회의원 복지공약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한영조**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4·13 총선 제주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모두 차지한 가운데 20대 국회의 지난 30일 개원됐다. 국회의원 신분은 부여받은 의원들은 4년 임기의 첫출발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선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물론 지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다양하겠지만 그럼에도 복지관련 공약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1일자 제주사회복지신문 제103호 2면을 보면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각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복지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공약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주지역 복지계 차원의 공약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매니페스토 검증사이클 기준에 따라 공약 이행 및 달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公約이 空約으로 그쳐서선 안돼

매니페스토 검증사이클은 3단계 순환구조이다. 1단계는 선거기간 후보자가 복지공약을 발표하면 유권자는 그 공약이 매니페스토 5대 기준(목표·기한·재원·구체성·책임성)에 맞게 제대로 구성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2단계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선택받은 공약에 대해 임기동안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유권자에 의해 연차별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3단계는 이행실적 평가이다. 임기 마지막 연도에 최종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선임여

부를 묻는 순환구조이다.

이처럼 매니페스토 검증사이클로 볼 때 이번 국회의원 복지공약은 2단계에 포함되는 연차별 이행여부 평가기간이다. 4년의 임기 가운데 처음 1년의 이행여부와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공약 이행여부와 함께 달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증과 평가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매니페스토 3단계 검증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약이행여부를 감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이행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공약검증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이번을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도지사, 도의원 등 선출직 매니페스토 검증시스템이 복지계에도 도입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연령·장애·계층까지 고려한 제도



**전미경**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단순히 남성, 여성이라는 피상적 분류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수혜대상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하여 특정 성(性)이 배제되고 있다면 배제되는 대상을 참여시키기 위해 예산의 배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재조정하는 제도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남성이 사회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는 전제 아래 시작된 여성정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것 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남녀 모두 생활 곳곳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별 뿐 만 아니라 연령, 장애, 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수혜자의 욕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상에서 해당 정책의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보면 장애인·임산부·유아동반 주차구역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성별영향분석평

가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구획이 각각 구분되어 공간을 많이 차지함은 물론 어떤 곳은 모자라고, 어떤 곳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교통약자 전용' 구획을 하나로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례 깊음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보완한 사례다.

분석평가 결과를 실제로 예산과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공무원이 관심과 노력을 가진다면 극복 가능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해 나아갈 일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칼럼

### 캥거루들이 돌아온다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속되고 있는 경제악화로 인하여 독립한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돌아와 얹혀사는 '리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 리터루족은 '리턴'과 '캥거루'가 결합되어 탄생된 신조어로,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한 자녀들이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컫고 있다. 부모의 품을 다시 찾는 주된 이유는 부모에 대한 효도나 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장 안전한 부모의 언덕을 찾는 것이다. 어미 캥거루의 품을 다시 찾는 성인이 된 캥거루는 주거문제 해결, 자녀양육 등을 부모로부터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들을 어머니가 해 주는 음식에 집착한다는 뜻의 맘모네(Mammone)라고 하며, 영국에서는 부모 주머니 속의 아이라는 뜻으로 키퍼(Kid in Parents Pocket)라고 한다.

#### 자녀 경제적 어려움 떠안은 '불효파산' 도 급증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귀환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발적 동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떠밀려 선택한 어쩔 수 없는 동거는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자발적인 동거로 인한 가족간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40세가 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자식과 이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 간 법적 분쟁이 연 8천건에 이른다고 한다.

부모가 자녀의 비밀 언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모 역시 노후준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미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리터루족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준비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부모는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는커녕 부모 스스로의 부양조차 어려운 상황에도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빛은 자녀가 지고 파산은 부모가 하는 불효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효파산이 아니더라도 부모 스스로의 부양조차 어려운 노후파산과 노인빈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제불황을 이유로 삼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온 캥거루들이 자신의 부모와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그 방법과 실천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부모의 현실이 곧 캥거루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④

사회복지법인 삼다 양예홍 이사장



“시각 장애로 살아온 인생역정’ 한편의 드라마쇼”

초등 3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실명 ‘솔한 어려움’ 강한 의지로 극복

우리 사회에서 장애 당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하물며 1950년대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실명에 이른 한 소년이 살아온 인생역정은 어느 누구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솔한 어려움을 견뎌 내고 제주지역 장애인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반을 갖추는데 헌신한 양예홍 사회복지법인 삼다 이사장을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네 번째 인물로 만나보았다.

“당시 국민학교 3학년이 끝나던 해 겨울,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말이며 조개를 채취해서 익혀 먹기로 했어요. 마침 그 날은 제가 불당번이어서 불이 붙을만한 것들을 모아왔죠. 하얀색 막대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폭발물이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에게 있어 고향 성산포의 하늘과 바다의 빛같은 국민학교 3학년 시절의 기억에서 멈춰 있다.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충격일 수 밖에 없어요. 어느날 새벽 시간에 기억을 더듬으며 동네에 있었던 가파른 절벽에 올랐어요” 부들부들 떨며 몸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의 귓가에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예홍아 넌 이미 죽었다 다시 태어난 목숨이다. 다시 세상을 산다는 각오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마치 바로 옆에서 얘기하듯 선명하게 들리는 할머니 말씀에 그는 부질없는 생각을 접고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받아 들였다.

하루는 혼자 집을 지키는데 누군가가 ‘제주시에 맹아학교가 있다’고 쓰여진 메모를 놓고 갔다고 한다. ‘맹아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 양 이사장은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다.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했던 그에게 ‘맹아학교’가 삶의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렇게 그는 현재 삼성혈 인근에 있던 ‘맹아학교’에 들어가 농아 학생들과 함께 기숙생활을 하게 된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안마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양 이사장은 대전에 있는 시각장애인학교로 전학을 가고 그 곳에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합격해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그렇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양 이사장은 제주에 내려와 후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안마사’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은 늘 양 이사장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봉사’, ‘맹인’이라는 말로 비하하며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보다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시각장애인들이 자활하고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1971년도에 탄생하게된 조직이 ‘맹인 자활자립협회’. 이후,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그

체적으로 진척되었지만 아쉽게도 현실화되지 못하게 된다. 그 후 1996년 장애인단체들의 재도전이 시작된다. 당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모여 장애인총연합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 현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 이사장은 다른 장애인단체장들과 함께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쫓아 다니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오며 어느새 제주지역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진면목이 다시한번 발휘된 순간이었다.

그런 그에게 아직 이루지 못해 아쉬운 일이 있는지 물었다. “앞 못 보는 장애도 힘들고 서러운데 배움의 길 마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시급한게 대용량 점자 프린터기인데요 매번 예산확보가 어려워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점자 출판물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양 이사장 본인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기에 시각장애인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만 같다. “산남지역 시각장애인들이 제주시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하는 부분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산남지역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기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헬렌켈러는 앞을 못 보는 장애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려는 도전정신이 있는 한 ‘장애’는 작은 불편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양 이사장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다. 깜깜한 새벽 성산포 어느 절벽 위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 했던 시각장애 소년이 다시 태어나 하나 하나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정리 - 김성건 사무국장〉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사회복지소식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맹인자활자립협회 창립 등 시각장애인 권익향상 헌신 “산남지역에도 전문 복지관 하루 빨리 마련됐으면”



▲ 좌) 1987년 제주도맹인자활자립복지협회 임원들과 '불우회원 돕기' 활동에 나서고 있는 양예홍 이사장(앞줄 왼쪽 첫번째), 우)1982년 맹인자활자립복지협회 정기총회 모습.

해 5월에 ‘맹인자활자립복지협회’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다. 시각장애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양 이사장이었기에 가능했던 제주 시각장애인 복지의 역정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1980년대 제주지역에 장애인당사자들이 주축이 된 장애인단체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게 된다. 의기투합한 장애인단체에서 부지를 공동매입하기도 하는 등 구

장애인복지현장의 중심에서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짬 양 이사장은 어느 시각장애인에게서 농반진반의 얘기를 듣게 된다.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정작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라 생각하고 별 뜻 없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양 이사장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양 이사장은 1년여를 준비한 끝에 2003년 10월에 드디어 제주시 월평동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의 문을 열게 된다. 무엇인가

시설탐방

(78)유진 주간활동센터 · 단기거주시설

# 아이들의 자립 돕는 활기찬 웃음이 가득한 집

## 스스로 먹고 씻을 수 있는 '자립적 생활' 강조 자신감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호응도 높아

“우리 시설의 아이들은 참 밝아요. 오시는 분들마다, 아이들이 어쩔 이렇게 활동적이고 웃음이 많은지 비결을 알려 달라 하더라고요” 최은미 원장이 시설을 소개해 달라는 물음에 나온 답이다. ‘밝음’과 ‘활기참’이 자랑이라는 시설에는 계단과 복도마다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사진들로 가득하다. 지난달 제주도 해안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유진 운영 중인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을 찾았다.

사회복지법인 유진의 설립은 최은미 원장이 지적장애 2급인 아들의 재활과 교육을 위해 98년도에 제주로 내려오면서 시작된다. 당시만 해도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가던 시절이었다. 최 원장은 처음 아들의 교육과 재활과 함께, 제주에 많이 부족한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을 설립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유진특수아교실을 시작으로 2001년 유진주간보호센터, 2004년 유진단기보호센터, 2005년 유진어린이집 등을 설립했다.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장애인을 재활과 교육을 위한 곳이다. 시설에서 이용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립적 생활’이다. 최 원장은 아들을 키우고, 장애아동들을 교육하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왔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스스로 손가락을 들어 밥을 먹고 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유진에서는 이용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8년 전부터 시작한 수화교육은 이용인들의 성취감 증대, 집중력 및 자신감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에서는 이용인들의 성취감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대외활동 및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됐다. 꾸준히 진행돼 온 수화교육으로 이제는 공연을 펼칠 만큼 실력도 늘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날 식전행사에서 공연을 열어 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이용인들의 대외활동이 주는 장점에 주목해 라인댄스 팀을 꾸려 연습 중이기도 하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특별히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은 원예교육, 아로마 마사지, 족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및 타 기관과의 연계와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이용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농아인복지관을 찾고, 적십자 봉사회, 농협 서광로지점, 노형동 장애인지원협의회, 기아자동차 화북점 등과 함께 한달에 한번 올레트레킹을, 곰두리 봉사단과는 일주일에 한번 수영프로그

램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 덕분인지, 시설 내 아동 여럿은 지난해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전에서 달리기와 역도 등 부문의 매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최은미 원장은 “손가락을 잡지도 못했던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연필을 잡지 못하던 아이가 글을 깨치는 변화가 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은 조금 더더서 그렇지 반드시 바뀐다는 것을 봐 왔기에 앞으로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재활과 교육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32

## 자식 없이 돌아가신 어르신 재산 어떻게 될까?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된다.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라지만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텐데 많은 적든 세상에 남기는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 민법 상속은 4촌까지

우리 민법상 상속은 4촌까지 가능하다. 배우자나 자식이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나 삼촌, 사촌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던 친척이라도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문제는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

어 가족관계등록부나 과거 호적 관련 서류의 열람이 까다로워지면서 배우자나 자식 외의 상속인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살던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 액수가 적지 않은 사례도 있다.

민법은 이 경우를 위해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 상속인의 부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1년

정도 상속인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법원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달라고 청구하며 그래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한다. 그러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당한 관리자가 나타나도 청구하지 못한다.

◆ 특별연고자 상속할 수 있어

특별연고자란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를 의미하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양로원이나 병원 등의 단체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럼 상속인이 없을 경우 돌아가시기 전 간호를 한 사람은 재산을 전부 가질 수 있는가?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청구를 하면 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종류, 성별, 직업, 연령, 상속 잔여재산의 종류, 액수, 내용 등과 특별연고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분여한다는 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이 남길 재산을 뜻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미리 법적인 조치를 권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